박소현의 섹.시.토.크

잠자리에서의 과속 방지턱

"우리 남편 아무래도 조루인 것 같아."

차 한 잔 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K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너무 빨리 흥분하는데다 혼자 열심히 기분 내다 몇 분 못 버티고 끝내. 나는 꼭 남의 집 잔치 기웃거리다 오는 기분이야."

"연애할 때도 그랬어?"

"지금보다는 나았지.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지 살피긴 했으니까. 지금은 어디 볼일 보러 나가야 하는 사람처럼 급하게 하니까 그만큼 빨리 끝나."

K남편이 매사에 성미가 급한 편인 건 알고 있었는데 잠자리에서조차 그렇게 급한지는 몰랐다. 다들 그냥 '어쩌누'하는 얼굴로 쳐다보고만 있는데 한 친구가 나선다.

"과속 방지턱을 하나 깔아야겠네.", "과속 방지턱?"

"운전하다보면 이따금 깔려 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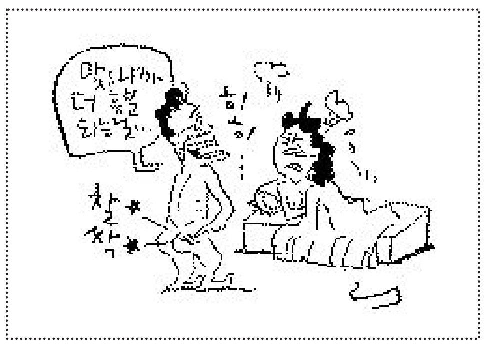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 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야.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남자들이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과속방지턱을 어떻게 깔아 두냐고. 몸에다 까는 거야?"

한 친구의 천진한 질문에 웃음이 터졌다.

"그걸 몸에다 어떻게 까냐? 잠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은 말밖에 없어."

"흥분이 좀 감소될만한 말을 이따금 던지는 거지. 외국영화에서는 남자가 머릿속으로 노래도 부르고 철자도 외우고 그러더라. 그런 게 다 과속 방지턱이지."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과속방지턱이 될 만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하나씩 아이디어를 꺼내 놨다.

"당신 내 생일이 언젠지 알아? 이거 어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까?"

"이번 달 보너스 얼마나 나와? 이게 딱 일 것 같은데?"

"아예 시댁 이야기를 하는 건 어때?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하고 말이야", "그러다 아예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혼자 신나게 속도내는 남편
흥분이 감소될만한 말을
잠자리에서 던지는 거야
그런게 다 과속 방지턱이지

또 한 차례 웃음이 터진다. 정말 못 말리는 아줌마들이다.

"그런데 한창 흥분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 "

"그래. '너는 해라. 나는 딴 생각중이다.' 이러는 거 같잖아."

"차라리 빰을 찰싹 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오, 그거 좋겠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원래 정신 차리라고 할 때도 빰을 때리잖아."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며 K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너스나 시어머니 얘기보다는 몸을 살짝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고 빰을 때리자니 화를 낼까 걱정이 돼서 K는 결심했다. 엉덩이를 때리기로.

며칠 뒤 가진 남편과의 잠자리에서 K는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혼자 신나게 속도를 내는 남편의 엉덩이를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 찰싹 때린 것이다. 손끝을 제법 매섭게 세워 때렸다.

그런데 잠시 멈칫하거나 '왜 이래?'하고 물어볼 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걸쭉한 신음소리를 낸다. 이럴수가. K의 예상을 뒤엎고 남편의 사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다. 잠시 뒤, 남편은 K 옆에 누우며 나른한 얼굴로 말했다.

"좋은데? 다음에도 좀 때려줘."

과속방지턱은 무슨 얼어 죽을 과속방지턱인가. K가 이날 얻은 것은 남편이 잠자리에서 맞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뿐이었다. 〈연애칼럼니스트〉

리빙 센스

화장품 플러스 궁합②

◇비타민 C+보습 에센스

비타민 C는 피부 탄력 회복, 화이트닝, 노화 방지 등에 효과가 좋지만 보습 기능이 떨어진다. 비타민 C가 함유된 제품을 바르고 30초 정도 가볍게 두드려 완전히 흡수시킨 다음 보습제를 발라주면 한결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토코페롤 성분이 들어 있는 보습제는 비타민 C의 흡수를 도와준다.

◇모공 케어 제품+퍼밍 에센스

모공 케어 제품은 피지 분비를 컨트롤해서 피부의 번들거림과 모공 확대를 막아준다. 퍼밍 제품 또한 느슨해진 피부에 탄력을 주고 탄력 저하로 늘어진 모공을 팽팽하게 조이는 효과가 있다.

모공 케어 제품과 퍼밍 제품을 모두 사용할 경우 확대된 모공이나 늘어진 피부를 개선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올림픽 열기 인터넷서 재점화

인터넷에서 올림픽의 열기가 재점화되고 있다. 6일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의 개막을 앞두면서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막을 내린 베이징 올림픽 영광 재연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수영국가대표로 나서는 '얼짱' 김지은 선수가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여자 자유형 50m와 100m에 참가하는 김지은은 빼어난 외모와 실력으로 패럴림픽 개막전부터 인기스타로 급부상했다.

김지은은 뇌병변 장애 재활치료를 위해 수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를 이겨내고 올림픽 8관왕에 오른 마이클 펠프스와 비교되는 등 눈길을 끌고 있다.

'달인' 김병만도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

'달인' 개그로 인기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코미디언 김병만은 지난 3일 열린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코미디언 상을 수상하며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다. 이 날 김병만은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지께 "저 상받았습니다"라며 눈물로 수상 소감을 밝혀 네티즌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기도 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선 축구선수 박주영도 이번 주 네티즌이 주목을 받았다.

허정무호 공격수로 나서 이렇다할 활약 없이 속앓이를 하던 '축구 천재' 박주영이 지난 2일 프랑스 프로축구 1부리그 AS모나코와 이적료 200만 유로(약 32억원), 약 8억원의 연봉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최순호 현대 미포조선 감독이 처음 프랑스 무대를 밟은 후 서정원·이상윤·안정환에 이어 박주영이 프랑스 명문팀에 입단하면서 축구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주영은 에이스를 상징하는 백넘버 '10번'을 받으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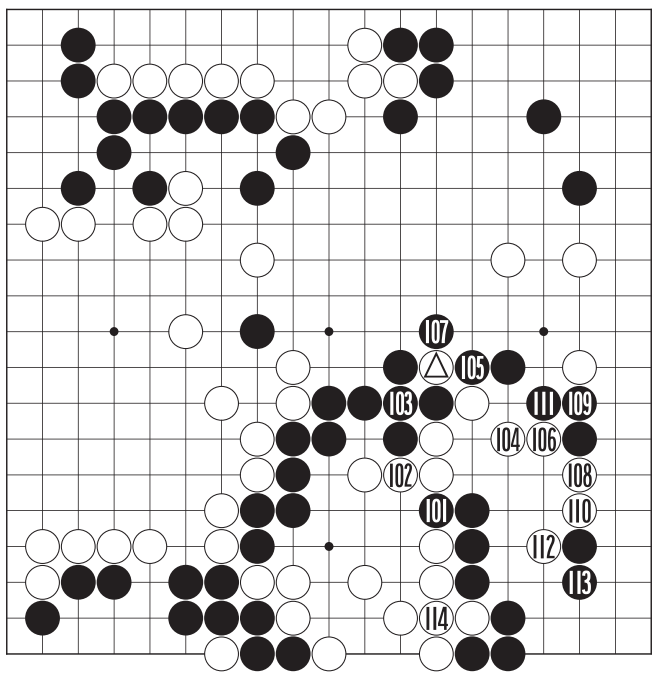
3일 열린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코미디언 상을 수상한 김병만(왼쪽에서 두번째)이 동료 연예인들의 축하 속에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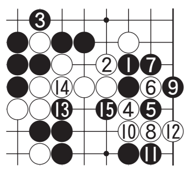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수순 하나를 빠뜨린 빵때림

개인전 준결승 7보 (101~114)

白 김영수 5단 (전남교사회) 黑 방재혁 5단 (창이유통)





참고도

백 Ⓐ로 몰아서 패로 버틴 것은 기세며 강수였다. 이런 곳을 몰지 않고 슬금슬금 물러서다가는 아무리 유리한 바둑이라도 역전되기가 십상이다.

불리한 방재혁 5단의 입장에서는 바둑이 일단 난전의 양상으로 변한 것이 반갑다. 그래서 일단 101로 찔러 백 대마의 삶을 추궁한 다음 103으로 이어서 후퇴한다. 패로 버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워낙 대패라 패감이 없는 것이다.

김영수 5단도 조심스럽다. 행여나 빌미를 줄까봐 백 한점을 살리지 않고 106으로 치받아 대마의 삶을 염려하고 있다.

이때 흑 107로 따낸 수가 소심했다. 이 수로는 일단 '참고도'의 1로 치받아 버티고 백 2로 둘 때 3으로 따내야 했다. 그러면 15로 끊는 수가 있어 11이 성립한다. 실전은 109가 타이밍이 늦어 114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 SINAN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4일(음 8월 6일 戊申)

子	36년생 불연이면 올인도 생길 수 있다. 48년생 산 넘어 산이나 준비를 철저히 하면 오히려 득이 되리라. 60년생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나 무력할 것. 72년생 구설수가 있을 수도. 84년생 자신은 편하지만 이웃은 괴롭다. 행운의 숫자 : 07, 40
丑	37년생 부부의 정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생김. 49년생 부부사이의 불화는 서로의 탓으로 생각하라. 61년생 가족간의 어려움이 생긴다. 73년생 마음은 편하지만 상황은 어려워 질수도 있다. 85년생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지만 해결은 미루어진다. 행운의 숫자 : 09, 36
寅	38년생 다가올 일을 먼저 예상하라. 50년생 갑자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준비하고 있으라. 62년생 화려한 외출을 해보라. 74년생 이웃의 좋은 소식이 들리니 함께 기뻐해주라. 행운의 숫자 : 21, 25
卯	39년생 건강검진을 받아 보라. 51년생 행동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라. 63년생 병은 작을 때 고쳐야 좋으리라. 75년생 변화보다는 집중을 해야 할 때이니 하던 일에 치중하라. 행운의 숫자 : 05, 26
辰	40년생 현실을 떠나 마음껏 상상해보라. 52년생 급히 서둘러야 할 일이 생긴다. 64년생 구설수는 항상 상존하니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76년생 돈은 구하나 쓸 구멍이 곧바로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8, 37
巳	41년생 사람은 보이지 않으나 소식은 온다. 53년생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해보라. 65년생 꿩 먹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기니 금상첨화다. 77년생 시기상조이니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할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 29
午	42년생 늦게까지 일을 하나 헛일이다. 54년생 부지런히 달려도 갈 길이 멀다. 66년생 부부사이의 오해는 집안에서 처가 만든다. 78년생 시비가 생길 일은 아예 곁에도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01, 35
未	43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55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용서의 자비를 쓰라. 67년생 마음을 곱게 써라 시비가 걱정된다. 79년생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할일이 많다. 행운의 숫자 : 06, 28
申	44년생 자신의 명예보다는 부하의 앞날을 생각하라. 56년생 상사로 인해 고통이 생길 수 있다. 68년생 옛 정은 소중한 것이니 성숙한 우정을 쌓으라. 80년생 갑작스런 소비에 대비하여 약간의 돈을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14, 38
酉	45년생 온고이지신이니 새로운 것보다는 지난날을 점검하라. 57년생 안과계통의 검진을 받아 보는 것도 좋으리라. 69년생 상대방의 인격도 나의 자존심만큼 지켜주라. 81년생 실패를 안 하려거든 서두르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2, 30
戌	46년생 금의야행 노력의 빛이 나지 않는다. 58년생 슬기롭게 대처하면 어려움은 사라진다. 70년생 가슴이 답답한 일은 생기나 주변의 도움이 있다. 82년생 음모나 고자질하는 중인이 나타나니 마음을 곱게 써라. 행운의 숫자 : 03, 45
亥	47년생 어려운 일은 이미 발생하였다. 59년생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때이다. 71년생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지내라. 83년생 사면초가라 생각되면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행운의 숫자 : 11, 3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HARTMANN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40>

It's your lucky day.

오늘이 선생님에겐 길일 입니다.

A : Hello.
B : Hi, I'm calling to offer you free long distance service.
A : Free long distance. Are you kidding?
B : No, it's your lucky day.

A : 여보세요.
B :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공짜 장거리 전화 서비스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A : 공짜 장거리 전화 서비스?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B :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선생님의 대박 터진 날입니다.

* long distance service : 장거리 전화 서비스
* 매리 씨를 점검 확인하고자 전화드렸습니다.
= I'm calling to check up on Mary.
* offer : 제공하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140>

3Kの仕事は、誰もやりたがりませんね。

3K 일은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A : 3Kの仕事は、誰もやりたがりませんね。
B : 3Kって何ですか。
A : ああ、[危險(きけん), 汚(きたな)い, きつい]のことなんです。Kで始まる言葉だから3Kなんですよ。
B : でも、この頃は失業率(しつぎょうりつ)が高くて, 高學歴者(こうがくれきしゃ)でもそんな仕事をしている人が結構(けっこう)いるそうですよ。

A : 3K 일은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B : 3K는 무슨 말입니까?
A : 아아.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K로 시작하는 말이니까 3K입니다.
B : 하지만 요즘 실업률이 높아서 고학력자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始(はじ)まる : 시작하다
言葉(ことば) : 말
この頃(ごろ) : 요즘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217>

每天有几节课?

매일 몇 시간 수업합니까?

A: 你每天有几节课?
Nǐ měitiān yǒu jǐ jié kè

B: 我每天有八节课。
wǒ měitiān yǒu bā jié kè

A: 上午几点上课?
shàngwǔ jǐ diǎn shàngkè

B: 八点上课。
bādiǎn shàngkè

A: 당신은 매일 몇 시간 수업합니까?
B: 저는 매일 8시간 수업합니다.
A: 오전에는 몇 시에 수업합니까?
B: 8시에 수업합니다.

课	[kè]	수업
节	[jié]	교시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857>

朝名市利(조명시리)

조정 조, 이름 명, 저자 시, 이로울 리

조명시리(朝名市利)는 명성은 조정에서, 이익은 시장에서 다투라는 뜻이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 격에 맞는 곳에서 하라는 뜻으로 때와 장소가 알맞다는 '적시적지(適時適地)'와 비슷하다.

진(秦)나라 혜문왕(惠文王)때 중신 사마조(司馬錯)는 어전에서 촉(蜀)을 정벌하면 국토도 넓어지고 백성들의 재물도 쌓일 것이므로, 일거양득(一擧兩得)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횡가(縱橫家) 출신의 재상 장의(張儀)는 생각이 달랐다."진나라는 우선 위(魏)나라 초(楚)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천하의 저자인 한(韓)나라의 삼천(三川) 지방으로 출병한 후 천하의 종실인 주(周)나라의 외곽을 위협하면, 주나라는 스스로 구정(九鼎, 천자의 상징물)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그 보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때 천자를 끼고 천하에 호령하면 누가 감히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패업인 것입니다. 변경의 촉나라를 정벌한들 군사와 백성을 피폐(疲弊)하게 할 뿐 무슨 명리(名利)가 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명성은 조정에서 다투고 이익은 저자에서 다툰다(朝名市利)'라고 합니다." 그러나 혜문왕은 사마조의 진언에 따라 촉을 정벌하여 국토를 넓히는 데 주력하였다. (戰國策, 秦策)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